



올바른 시트 포지션을 위한 시트 조절 스위치 사용하기

운전의 첫걸음은 제대로 앉는 것부터 시작된다. 올바른 운전 자세를 갖춰야만 위급 상황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고, 사고 시 부상 위험 또한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런 만큼 운전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'올바른 시트 포지션'을 설정해야 한다. 올바른 시트 포지션을 어떻게 내 몸에 맞게 설정하는 방법을 'PLAY KIA' (play.kia.com)가 설명했다.

■ 시트 높낮이 조절



올바른 운전 자세를 위해 첫 번째로 조정해야 하는 부분은 시트 높낮이 조절이다. 시트 포지션이 너무 낮으면 시야 확보가 힘들어지고, 너무 높으면 충돌 시 에어백의 효용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. 운전자에게 맞는 최적의 시트 높이는 운전자의 머리와 전장 사이에 주먹 하나가 여유롭게 들어갈 정도다.

■ 안전과 직결되는 앞뒤 거리 조절



그 다음은 앞 뒤 거리 조절이다. 다리의 각도는 90도에서 120도 사이로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다. 사실 각도에 집중하기보다,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풀 브레이크 시 제대로 된 힘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

거리만큼 시트를 앞으로 당겨 앉는 것이 중요하다. 그 이유는 풀 브레이크 시 제대로 된 힘을 전달할 수 있고 더욱 안전한 페달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■ 등받이 각도 조절



등받이 각도가 중요한 이유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기 위한 최적의 자세를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. 팔이 살짝 굽혀지는 상태로 좌우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팔꿈치가 허벅지나 몸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설정해주시면 된다. 등받이 각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충돌 사고 시 안전벨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, 추가적인 부상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올바른 각도 조절이 필요하다.

■ 스티어링휠 틸트/텔레스코픽 설정



최적의 운전 포지션을 설정하기 위해 스티어링휠 틸트(위아래) / 텔레스코픽(앞뒤)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. 세부 조정 시 항상 어깨와 등을 시트에 밀착시킨 상태로 설정해주어야 한다. 고속으로 코너 진입/탈출 시 어깨와 몸이 시트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섬세한 조타가 힘들어 지게 되고, 운전의 피로도 또한

상승하기 때문이다. 스티어링 휠 파지의 가장 기본은 9시 3시 양손 파지라는 것도 잊지 말자.

■ 헤드레스트 조절



헤드레스트는 운전자의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지만, 긴급 제동 시나 위급상황에서 탑승객의 목이 뒤로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. 위아래 치우침 없이 탑승객의 머리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을 높이로 설정을 해주어야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.



단순히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이 아닌 위급 상황에 재빠르게 차량을 조작하고 사고 시 부상 위험까지 낮춰주는 시트 포지션. 내 몸에 꼭 맞는 시트 포지션이어야 더욱 안전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.

사진=PLAY KIA



34년을 오직 한 길

벨플라워/세리토스/다우니/플러튼/롱비치/놀릭

빅토리 바디샵

VICTORY BODY & SHOP

LIFETIME WARRANTY!

최대의 시설 / 만족한 서비스 / 저렴한 가격

- ✓ 보험 수리 전문 (일단, 전화 먼저 주세요!!)
- ✓ Lease Return
- ✓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
- ✓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
- ✓ Towing & Rent Car



(562)920-9745~6

17441 Clark Ave., Bellflower, CA 90706
Email: victoryautobody@gmail.com

